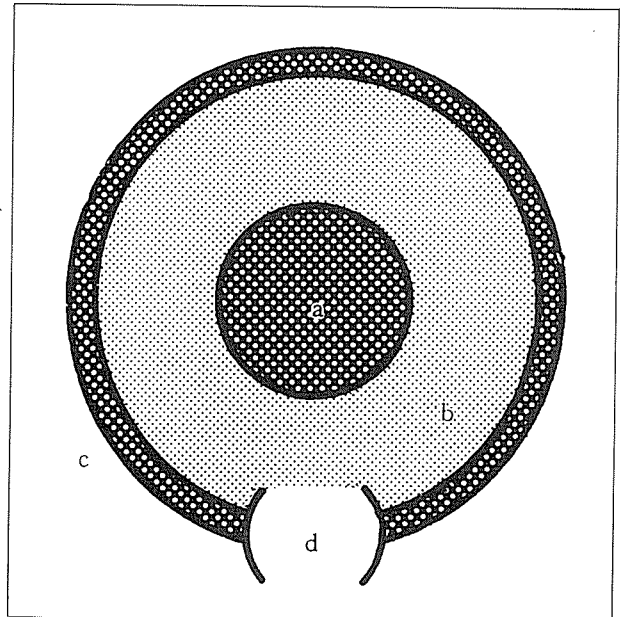


日本史속의 建物과 都市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趙仁淑 / 다리건축
by Cho, In-Souk



2. 제례의식 · 불교건축

2. 일본땅에서의 불교건축(계속)

이 단계의 空間구성은 가란(伽藍)의 구성요소인 主建物 및 탑 그리고 회랑, 문의 관계로 잘 표현된다. (그림1)의 중심부분 a는 그 공간의 주체를 위한 건물로서 대변된다. 즉 불교사찰에서의 탑(塔), 八角円堂 또는 金堂등이고 궁전에서 의 황궁이나 신전(寢殿)이고 神社에서의 本殿이다. 그 중심건물의 내부공간은 그 공간의 주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a를 둘러싸고 있는 빈 공간 b는 회랑부분인 c로 둘러싸여진 외부공간으로 특별히 정해진 기능은 없는 곳이다. 그러나 주체의 영역이 이곳까지 확산되어 주체를 훨씬 성스럽게 한다. 주체와 방문자간의 교류는 문(門)인 d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즉, 이 단계의 공간구성의 원칙은 모든 요소들을 중심건물을 가운데 놓고 그 주위에 늘어놓아 무한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1) 중심건물

고대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곧또오(金堂, main hall, 本尊佛모심)이다. 그러나 일본의 초기불교에서는 탑(pagoda)이 사실상 더욱 중요했다. 이는 스투파(stupa; 탑의 전형)가 사카무니의 무덤을 상징하면서부터 고대인디아 사찰에서의 예배의 대상이 된 이래로 중요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아스카데라(飛鳥寺)에서 탑이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을 보면 초기에는 탑이 훨씬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시간이 흐름에 따라 金堂(main hall)과 탑(pagoda)은 거의 같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호류유지(法隆寺)그림7 b), 결국에 가서는 탑은 金堂의 장식품이거나 또는 단순히 사찰경내의

目次

1. 개관—원시시대
2. 제례의식, 불교건축
3. 都邑
4. 住居와 조경
5. 사무라이文化와 소잉(書院)
6. 城의 時代
7. 에도(江戸)—‘空間’과 ‘場’으로서의 江戸시대
8. 民家
9. 근대건축의 태두
10. ‘전통’의 재고, 현재속의 과거

사인포스트가 되고만다. 실질적으로 헤이안(平安)시대까지의 고대사찰에서는 탑이 있지만 중세로 내려오면 禪宗이나 淨土宗계통의 사찰에서는 탑이 없으므로 탑은 고대사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의 탑은 대개 3~5층의 목조이며 탑 꼭대기 부분의 후꾸바치(伏鉢)는 원래 인도탑의 전형인 스투파(stupa)의 형태를 작게 줄여 장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탑의 주요구조부는 3~5층의 기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의 다층건물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한 대칭성에 있다. 대개 일본탑의 특징은 4축(軸)에 대칭이고 평면은 정방형이며 4면에 문이 있다. 기둥은 각 면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지붕은 피라미드 형태이다.

일본탑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대가 올라갈수록 대칭성이 강하다. 호류유지(法隆寺)탑을 보면 4면이 소조상들로 둘러 싸여진 심바시라(心柱)가 있고 4면이 거의 같은 기단부이다 비슷한 모양의 돌계단까지 있다. (그림3 a, 그림4) 시간이 감에 따라 완전대칭이 깨지게 된다. 완전대칭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불상(佛像)을 안치하고서부터인데 불상은 바깥을 향하게 안치하게 되니 자연히 탑은 완전대칭이 깨지고 방향성 내지는 전면성을 갖게 된다. 중세로 내려오면 1층에 중심기둥인 심바시라(心柱)가 없어지고 心柱를 둘러싸던 네 개의 기둥 시템바시라(四天柱)중 뒤의 두개 기둥이 벽면에 의해 연결되어 제단 뒷벽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3 b) 이 벽을 레이고가베(來迎壁)이라 하며 이는 佛像 뒷 부분을 가려주어 전면에서만 예배를 드리게끔 한다.

히로시마(廣島縣)의 고조지의 3층탑은 四天柱의 앞의 두개 기둥을 아예 없애서 예배 드리기가 아주 편하게 해 놓은 좋은 예다. (그림3 c) 게다가 중세말엽쯤에는 레이고가베(來迎壁)이 좀 뒤로 가서 제단앞에 좀 더 넓은 공간을 둘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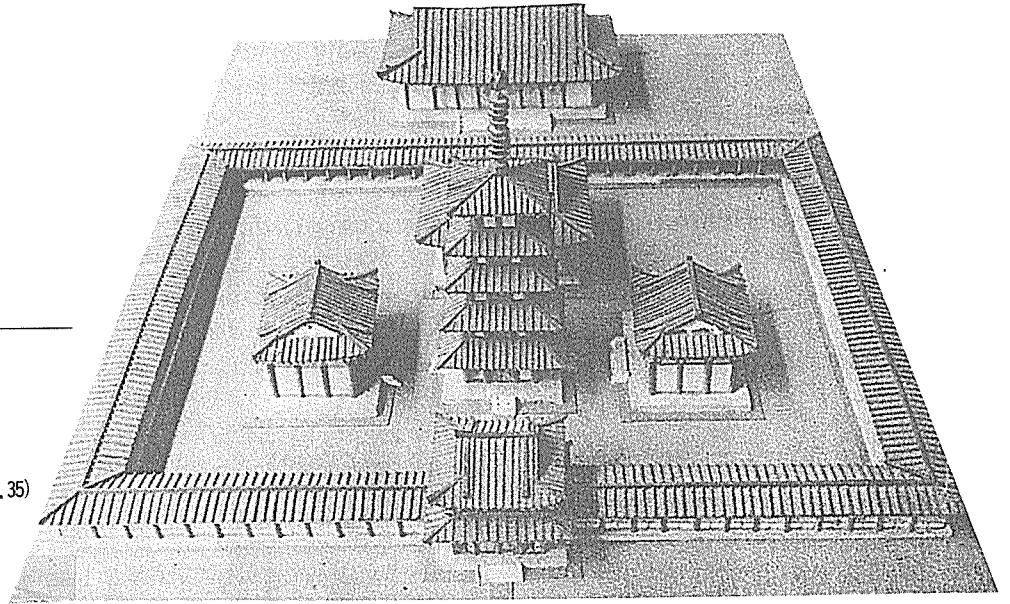
① 공간구성의 다이어그램 (이노우에 p.45)

- a. 주체를 위한 건물 (중심건물)
- b. "a"를 에워싸고 있는 여백공간
- c. 카이로 (廻廊)
- d.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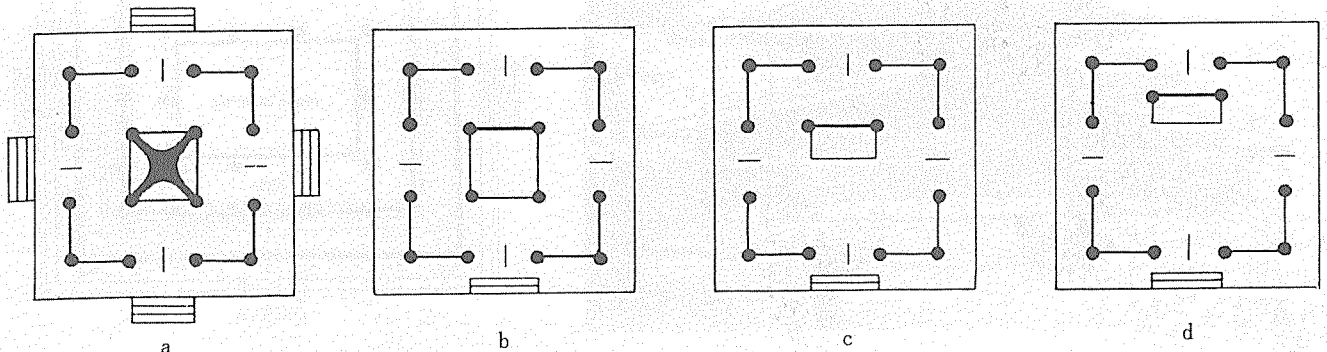
② 아스카데라 (飛鳥寺)의 복원모델 (이노우에 p.35)

③ 탑의 평면 비교도

④ 호오류우지 탑 (法隆寺 塔)의 복원도 (이노우에 p.23)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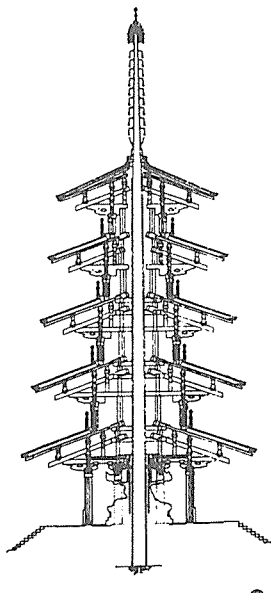
(그림3 d) 이 때쯤 되면 内部空間의 대칭성이 완전히 깨지게 되고 중세 이래로 탑들은 기단부의 계단이 전면에만 남게 된다. (그림3 b, c, d)

탑에 관련지어 엔도(円堂, 원형건물)에 대해 설명하면 엔도(円堂)는 사실상 8각형의 건물 즉 헛가꾸엔도(八角円堂)로 고대사찰의 주요 구성부분중의 하나였다. 이는 정방형의 佛堂과 기능은 비슷하고 사찰의 중심건물이기도 했었지만 주로 보조적인 佛堂역할을 많이 했다. 이 8각원당은 강한 대칭으로 문이나 창들도 대칭이 되고 8모지봉은 로반(露盤)과 호주(寶珠)가 받치고 있다. 円堂이라는 이름때문에 건물이 좀더 원형에 가깝고 보통탑보다 대칭성이 강하다.

호오류우지의 유메도노(法隆寺 夢殿)(그림5)는 완전대칭의 좋은 예다. 金堂의 평면구성은 호오류우지(法隆寺)가 좋은 예로 日本의 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金堂이다. 후대의 것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정방형에 가까워서 전면대 측면의 비율이 1:1.3정도 된다. 이는 4축대칭으로 안팎으로 거의 완벽한 대칭이 된다. 平面구성은 불상의 대좌가 있는 모야(母屋)와 히사시(庇), 모꼬시(裳階)로 되어있다. (그림6)

2) 회랑(카이로, 廻廊)

대륙문화 유입후 지어진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④

사찰에서의 회랑이다. 그러나 중세이후 점차적으로 지어지지 않게 되어 남아있는 것은 몇개 안된다. 카이로(廻廊)에서의 '로'(廊)는 원래 통과기능을 가진 길의 의미로 복도와 같은 의미이다. 고대에 이 회랑은 사실상 담으로서의 기능을 했었다. 불교사찰에서의 회랑은 사찰배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시텐오지(四天王寺)"나 "호오류우지(法隆寺)"등의 사찰 이름들은 사찰배치를 대변하는 용어로 쓰이곤 하는데 이는 사실상 본건물과 탑의 관계에서 구분지어지는데 공간구성상의 견지에서 보면 회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초기 불교사찰에서는 회랑이 탑이나 金堂등의 중요건물들을 에워싸고 있다. (그림7)

아스카데라(飛鳥寺)는 중심에 탑을 두고 탑의 東, 西, 北쪽의 거의 같은 크기의 金堂이 있고 회랑이 이 건물들을 둘러싸고 남북회랑 중간에 문을 두었다. (그림7 a)

호오류우지(法隆寺)는 탑과 金堂이 나란히 배치되어 이를 회랑이 둘러싸고 있고, 탑과 서쪽 회랑사이, 金堂과 동쪽회랑 사이, 탑과 金堂 중간에서 남북회랑 사이의 거리는 모두 같다. (그림7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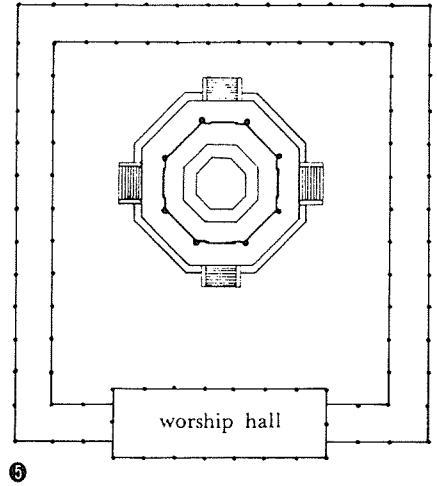
시텐오지(四天王寺)에서는 塔과 金堂이 앞뒤로 나란히 있고 회랑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다.

오오사까(大阪)의 시텐오지(四天王寺)에서는, 북쪽회랑에 講堂이 연결되어 있다.(그림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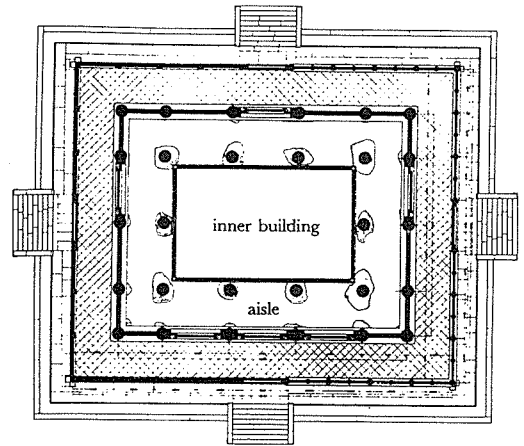
야꾸시지(藥師寺)에서는 金堂과 東·西塔이 회랑 안쪽에 있다.(그림7c)¹⁾

3) 문(門)

불교사찰에서 회랑안에 세워진 문에 대해 살펴본다. 아스카데라(飛鳥寺) 南門에 대한 기록이 니혼쇼끼(日本書紀)에 있다. “황궁의 제사가 아스카데라(飛鳥寺)에서 있어 그 때 佛經을 다 읽고 난 후 皇帝가 南門으로 가서 거기서 경배했다.”(이노우에 p. 39, 日本書紀)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스카데라(飛鳥寺)에서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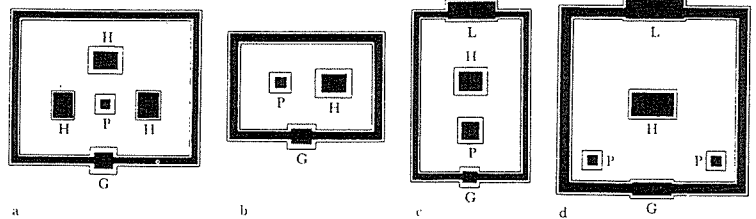


6

탑과 세 개의 金堂(main Hall)이 회랑으로 둘러싸여있어서 예배할만한 적당한 空間이 없다. 그러다보니 회랑의 남쪽 부분만이 제주(祭主)가 설한 장소였다. 이 문(中門)은 3칸×3칸으로 사찰의 南門인 난다이문(南大門)보다 훨씬 컸다. 이렇듯 예배장소로 사용되었던 중문(中門)의 예가 여러곳 있는데 그 중 호오류우지 東院의 유메도노(夢殿)는 오늘날 레이도(禮堂)라 부르는데 초기에는 中門으로 언급했었다.(그림 5)

문(門)의 일반적인 空間特性을 보자. 문은 담장에서의 열린 부분으로 우선적으로는 통과하는 길이며 일종의 열린부분 즉 틈새이다. 그러나 회랑으로 구획된 안팎의 서로 다른 공간 사이를 연결지음으로써 단순한 틈새로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두 공간사이의 경계구실을 한다. 즉 통과하는 길이기도 하고 멈추는 장소이기도 하다. 제주(祭主)는 문에 와서 멈추어 제사를 올린다. 문은 단순히 회랑의 한 부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주적인 구조물이기도 하다.

(계속, 다음 호는 도다이지(東大寺)와 쇼쇼잉(正倉院), 그리고 3. 都邑입니다)



- 5 73년에 창건된 호오류우지 유메도노 복원도(法隆寺 東院 夢殿)
- 6 호오류우지 金堂(main hall) 내부공간에서 부터 바깥 쪽으로
- a. 모야(母屋, inner building)
 - b. 히사시(庇, aisle)
 - c. 모꼬시(裳階)
- 7 초기 불교사찰의 배치
- a. 아스카데라(飛鳥寺)식
 - b. 호오류우지(法隆寺)식
 - c. 시텐노지(四天王寺)식
 - d. 야꾸시지(藥師寺)식
- (P=탑, H=金堂, L=강당, G=중문)

참고문헌

1.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by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2.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by Mitsuo Inoue(Chap. 2)
3. Japanese Culture by Paul Varley(Chap. 2)
4. 日本建築みどころ事典, 中川武編
5. 日本史 by 井上清(서동만 옮김)
6. 日本史 関斗基 編著
7. 日本史 by John whitney Hall(朴英宰 역)
8. 日本書紀 成殷九 譯註
9. 百濟寺刹建築 張慶浩 著
10. 日本美術史 監修 山根有三
11. 日本美術史 奏弘燮譯
12. "Source of Japanese Tradition" by Tsunoda
13. "Horyuji" by Edward Kidder

주1) 대체로 藥師寺 배치는 후대에 넣는 경우도 많지만 이노우에는 초기불교사찰에 분류를 한다. 이는 金堂이 회랑안에 있기 때문이다.(이노우에 p. 36)